

answer &
explanation

정답 및 해설



국어·생활 국어
1-1



1강 시 (1)

핵심 다지기

p.006

- 1 시 2 ⑤ 3 사전적, 함축적, 상징적 4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의태어와 의성어의 사용

성취도확인문제

p.007

- 1 대체로 3(4) · 4조, 4음보의 율격, '별'과 같은 시어의 반복, '라'라는 각운의 사용 2 ⑤ 3 ② 4 ⑤
5 봉선화

- 1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반복'이다.
- 2 이 시는 서늘한 저녁에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고 있는 시로,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3 이 시의 화자는 봉선화가 핀 것을 보고 어린 시절 누님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겨 있다.
- 4 '힘줄'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나'의 손을 의미한다.
- 5 '봉선화'는 누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실력 다지기문제

p.008~011

- 1 ① 2 ⑤ 3 ·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 :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에는 · 효과 :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며 처음과 끝을 같게하여 시에 안정감을 준다. 또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 부분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4 ⑤ 5 ④ 6 ④ 7 아주 먼 옛날 8 ② 9 어린 시절의 가난과 외로움에 대한 서글픔 10 ④ 11 ③ 12 ⑤ 13 ③, ⑤ 14 ① 15 ① 16 ② 17 ③ 18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눈을 감은 것이다. 19 ③

- 1 시에 곡을 붙인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 2 '강변'은 일상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동경의 세계를 의미한다.
- 3 이 시는 1행과 4행을 동일하게 설정하여(수미상관 기법)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더했다.
- 4 ㉠에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5 ④는 박재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으로, 이 시의 정서와 가장 비슷하다.
- 6 이 시는 가난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없는 동안 혼자 기다리는 외롭고 두려웠던 '나'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드러낸 작품으로, 어린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주로 나타나 있다.
- 7 2연의 시작 부분인 '아주 먼 옛날'이라는 말에서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은 하루 일을 마치고 힘없이 돌아오는 엄마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엄마의 고단하고 힘든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 ㉡, ㉢, ㉣은 혼자 남아 있는 상황 속의 '나'의 심리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 9 어른이 된 현재의 시점까지 어린 시절의 정서가 이어지고 있다.
- 10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운율(3·4조 또는 4·4조) 즉, 음수율은 시조와 같은 정형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 시는 대체로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는 내재율을 지닌다.
- 12 이 시에는 '돌담, 샘물, 새악시' 등 향토적인 느낌의 시어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 13 두 시의 운율상 공통점은 대구법과 음위율을 사용한 것이다.
- 15 [가], [나]에는 공통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16 짧은 길이의 표현 자체가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 17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이다. ③번은 죽은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다.
- 18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호수'만큼 깊고 넓다고 하였다.
- 19 이 시의 화자는 삶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2강 소설 (2)

핵심 다지기

p.012

- 1 내적, 외적, 주제 2 정서와 분위기 3 시대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단어나 소재를 찾는다.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시대상을 찾아본다.



성취도확인문제

p.013

1 양심을 속이고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2② 3 누이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4 호부호형(呼父呼兄) 5 신분에 따라 사회적 조건이 달라지는 적서 차별의 시대였다.

- 1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을 치라는 주변의 말에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 2 고향과 누이를 생각하는 소년의 마음은 슬프고 외롭다.
- 3 소년은 고향의 여름 밤에 누야와 함께 헤던 별들을 바라보며 고향의 누야를 떠올리게 된다.
- 4 길동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였다.
- 5 신분제 사회의 차별 때문에 길동은 갈등을 겪는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14~017

1⑤ 2③ 3 소작을 부치는 '나'는 마름인 점순이네에게 굶실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나'는 점순이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4① 5③ 6⑤ 7③ 8④ 9⑤ 10④ 11② 12④ 13⑤ 14⑤ 15 길동은 현실 저항적(극복적) 인물이지만, 공(公)은 현실 순응적 인물이다.

- 1 ⑤는 소설의 '배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갈등을 통한 효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2 '나'는 마름의 아들로 점순이네 땅을 얻어 부치고 있어서 굶신거려야 한다. 또한 점순이가 '나'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 3 본문의 내용 '설혹 ~ 일상 굶실거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은 자기의 성의를 무시한 '나'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난 점순이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6 **Plus α!**
토끼와 용왕이 상징하는 모습
• 용왕 :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지배 계층
• 토끼 : 힘없는 백성
- 7 [가] 죽음에 대한 공포, [나] 용왕의 태도 변화에 따른 희망, [다]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
- 8 토끼는 용왕을 속이기 위해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다.

- 9 소설에서는 인물의 상황과 처지, 글의 배경과 소재, 인물들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⑤는 시에서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10 '그림자'는 소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 11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는 소년의 행동을 통해 소녀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이 소설은 기록으로 전해지는 한글 소설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은 주로 설화나 민요, 서사무가 등이 속한다.
- 13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는 적서 차별과 같은 신분의 차별이 있는 사회였다.
- 14 길동은 적서 차별의 사회 제도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가게 된다.
- 15 길동은 만민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받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출가하기로 결심한다. 반면 공(公)은 현실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

3강 수필 (1)

핵심 다지기

p.018

1 수필 2④ 3 경수필

성취도확인문제

p.019

1④ 2① 3⑤ 4 혼자 정상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산을 내려갈 것인가. 5③, ⑤

- 1 '수필'은 생활 속의 체험에서 얻은 느낌이나 생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 2 글쓴이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희망의 말 '괜찮아'를 통해 따뜻한 정서를 드러내는 글이다
- 3 '괜찮아'는 용기를 주는 말이며, 용서, 희망, 격려, 나눔, 부축의 말이다.
- 4 글쓴이는 정상을 불과 백여 미터 남겨놓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5 ㉠은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이다



정답 및 해설

실력 다지기 문제

p.020~023

- 1 ② 2 ⑤ 3 달밤의 분위기에 심취한 서로의 마음을 읽은 데서 오는 침묵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4 ③ 5 ③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④
11 ⑤ 12 ③ 13 ② 14 ⑤ 15 ⑤

- 이 글은 구조의 논리성을 따지거나 갈등을 파악하는 것보다 글이 자아내는 정서와 분위기에 감상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이 글은 달밤에 노인과 만나서 느낀 따뜻한 인정에 대해 쓴 글이다.
-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달빛에 매혹되어 있음을 서로 알고 있다.
- 이 글은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이 옳다.
- 이 글은 헬렌 켈러 자서전의 일부로, 헬렌 켈러가 자신의 신체 장애를 극복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의 신비를 깨닫게 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이 글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글쓴이가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추상적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과 언어를 습득한 기쁨을 보여 주고 있다.
- 바로 앞 문장 ‘사실 나는~몰랐습니다.’를 통해 의미를 모른 채 행동만 따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설리번은 ‘물’의 철자(water)를 가르치기 위해 직접 우물가로 가서 손을 담그게 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헬렌 켈러를 가르쳤다.
- ①은 시에서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 글쓴이는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 ‘괜찮아’라는 말은 글쓴이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다.
- ㉠은 선의와 사랑, 용서, 너그러움, 격려와 희망 등을 의미한다. ③은 빌려간 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에게 빈정거리는 말이다.
- 일기는 개인적이며 비공개적인 글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다.
- 일기를 쓰면 간접적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얻게 될 수는 있으나, 일기를 쓰는 그 자체만으로는 모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전쟁 중의 도시 상황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강 희곡 · 시나리오(드라마 대본)

핵심 다지기

p.024

- 1 ⑤ 2 해설 3 (1) ㉠, (2) ㉡, (3) ㉢, (4) ㉣, (5) ㉤

성취도 확인 문제

p.025

- 1 ⑤ 2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현대인의 비판 3 ②
4 안유식 :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말이지……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프로를 주겠소!

- 이 글에는 할머니의 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가족들과, 할머니의 돈을 주지 않으려는 세탁소 주인 강태국 사이에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이 글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 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다.
- 돈만 알던 마음의 때를 빼내는 ‘마음 세탁’을 끝낸 강태국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안유식의 비장한 제안이 갈등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26~029

- 1 ③, ⑤ 2 박 과장의 아들 수철이 손 상무의 딸 세인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은 세인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직장 상사이기 때문이다. 자존심 강한 수철은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는 세인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난다. 3 ② 4 [나]-[가]-[다]-[마]-[라] 5 ④ 6 ③ 7 텔과 게슬러의 외적 갈등 8 ② 9 원술과 지소 부인의 외적 갈등, 지소 부인의 내적 갈등 10 ⑤ 11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어머니와 카세트를 자신이 고장 냈다는 오해를 한 누나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며, 이후 가출을 결심하게 된다. 12 ③

- 오답풀이

③ :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구성 단계는 ‘절정’이다.
⑤ : 문학 작품은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인 이야기이므로 실제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
- 세인의 사정을 알고 난 뒤 수철은 세인과 극적으로 화해한다.
- 세인이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에서 수철은 속으로 고소함을 느꼈을 것이다. 세인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후다.



- 4 희곡은 ‘발단-전개-절정-하강-대단원’의 5단계로 구성된다.
- 5 스위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이다.
- 6 게슬러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를 바탕으로 폭정을 일삼고 있다.
- 7 텔은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게슬러에게 청을 하고 있지만 게슬러는 계속 활을 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 8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다.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시나리오이다.
- 9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하는 원술과 이를 허락하지 않는 지소 부인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10 희곡에서 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어야 한다.
- 11 ‘동민’의 갈등은 가족들로부터 서운함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 12 막상 역 앞까지 이르긴 했으나 설레는 마음보다는 일이 생각보다 커진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느꼈을 것이다. 동민의 내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자책’과 신사의 간악한 태도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는 ‘합리화’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4 자유가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힘든 환경에 살아도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5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발터의 천진스러운 말이 사건을 또 다른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다.
- 6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 7 공(公)과 길동의 어머니는 적서 차별의 신분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현실 순응적, 봉건적 인물이고, 길동은 적서 차별의 신분 제도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적, 의지적, 진취적 인물이다.
- 8 장길산은 조선 19대 숙종 때 인물이라 광해군 때 창작된 이 소설에 등장할 수 없으므로 [다]는 후대에 전해지는 동안 개작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9 고전 소설에서의 사건은 우연한 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10 수필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처한 상황과 심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글쓴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이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1 이 시의 분위기는 어둡고 쓸쓸하다.
- 12 ‘찬밥처럼’은 가난 때문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어린 시절 시적 화자의 서글픈 모습을 상징한다.
- 13 ‘노인’과 [보기]의 화자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살고 있다.
- 14 처음 보는 사람에게 김치와 막걸리를 대접하는 모습에서 노인의 소박함과 인정이 드러난다.
- 15 일상 언어는 사전적, 지시적 의미를 중시하는 데 반해 시어는 함축적, 비유적 의미를 중시한다.
- 16 [가]는 4음보의 외형률을 지닌다.
- 17 시의 화자는 ‘별’을 바라보며 순수한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고 있다.
- 18 강변은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의 공간, 마음의 안식처이자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 19 대체로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으며, 내재율이다.

5강 영역 종합 문제 (문학)

p.030~036

- 1 ② 2 ③ 3 ② 4 힘든 환경에 살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5 ③ 6 ① 7 ② 8 [다] 9 ③ 10 ④ 11 ③ 12 찬밥 13 ④ 14 무청김치, 막걸리(농주) 15 ③ 16 ① 17 별 18 ④ 19 ① 20 • 가장 두려워하는 일 : 나치에 호출되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 • 이유 : 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강제 수용소는 곧 자유의 상실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21 ⑤ 22 ⑤ 23 ② 24 소나기를 만남 25 ② 26 ② 27 동백꽃 28 ③

- 1 [가], [나]는 소설, [다], [라]는 희곡 작품이다. 희곡과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허구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2 ③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뜯어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신사는 부자이고, 수남이는 가난한 점원임을 생각할 때 이 상황에서는 ‘벼룩의 간을 내먹다.’가 적절하게 어울리는 표현이다.



정답 및 해설

- 20 안네는 언니에게 호출장이 왔다는 사실을 듣고, 강제 수용소를 생각하며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린다.
- 21 독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다.
- 23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군 것은 나치들이었다.
- 24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가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된다.
- 25 ㉠, ㉡, ㉢, ㉣은 소녀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 구실을 한다.
- 26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나’는 점순이와 같등하고 화해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28 [마]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진다.
- 오답풀이**
① 개인의 내적 갈등,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 ④·⑤ 단체와 단체의 갈등

6강 수업 · 소개

핵심 다지기

p.038

- 1 (1) 정보 전달 (2) 담화 표지 (3) 소개하기 2 ③

성취도 확인 문제

p.039

- 1 ② 2 ③ 3 ⑤ 4 ③

- 1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구분하여 적는 것이 메모의 좋은 방법이다.
- 2 ㉠, ㉡, ㉢, ㉣ : 강조, ㉤ : 예고
- 3 소개하기는 듣는 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이다.
- 4 ③은 소개하는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40~043

- 1 ③ 2 ② 3 ④ 4 ⑤ 5 그러면 대축척 지도가 무엇일까요? 6 ④ 7 ② 8 ③ 9 ④ 10 달덩이, 자신의 외모를 적절히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11 ⑤ 12 ④ 13 날개 없는 천사 14 ⑤ 15 ⑤

- 1 ③은 사회, 국사 과목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이다.
- 2 밑줄 친 ㉠은 예고의 기능을 하는 담화 표지어이다.
- 3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수가 많고, 넓게 분포하는 것이 좋다.
- 4 ①은 나열, ②, ③은 예고, ④는 예시의 담화 표지어이다.
- 5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의 기능을 한다.
- 7 대축척 지도는 지도상에 크게 나타난다.
- 8 ①은 예시, ②는 강조, ③은 요약, ④·⑤는 예고에 해당한다.
- 10 별명이 ‘달덩이’인 이유를 자신의 포동포동한 볼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11 꿈은 붉은색, 성격은 하늘색, 특기는 초록색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13 글쓴이는 박춘자 할머니를 ‘날개 없는 천사’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 15 주관적인 의견보다 사실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7강 면담 · 광고

핵심 다지기

p.044

- 1 (1) 면담 (2) 정보 수집, 설득 (3) 신뢰성 2 라디오 광고

성취도 확인 문제

p.045

- 1 [가] 평가 [나] 상담 [다] 설득 [라] 정보 수집 2 ⑤ 3 ④ 4 ②

- 1 어떤 문제나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정보 수집, 충고나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은 상담, 의견, 태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은 설득, 어떤 인물의 지식 정도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평가이다.
- 2 ①, ③은 면담하기 단계, ②, ④는 면담 내용 정리하기 단계에 할 일이다.
- 3 ④와 같은 광고를 ‘공익 광고’라고 한다.
- 4 광고의 사진과 문구가 잘 조화를 이루고, 한눈에 의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광고는 [가]이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46~049

- 1 ① 2 ③ 3 ⑤ 4 ④, ⑤ 5 • 면담의 목적 : 설득 • 면담의 대상자 : 부모님 6 ④ 7 ⑤ 8 ① 9 ⑤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④ 15 많은 식품 의약 전문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 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이다. 16 ⑤ 17 ②

- 1 면담의 목적은 정보 수집이다.
- 2 사적이고 실례가 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4 선생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성적 고민과 상관없는 소풍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 5 방송반 활동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준호가 할 면담의 목적이다.
- 6 부모님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는 설득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 7 친구 부모님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친구와 직접 관계 있는 질문은 아니다.
- 8 무조건 상담 결과에 따를 수는 없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 9 면담 대상자의 답변을 질문자 마음대로 끊는 것은 좋지 않다.
- 10 ④는 인쇄 광고의 설득 전략이다.
- 11 '~시간 ~초'의 문구를 반복하여 장면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마지막 장면의 주제 의식으로 연결짓고 있다.
- 12 장면들은 모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내용으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 13 **Plus α!**
매체에 따른 광고의 특징
• 인쇄 광고 : 사진, 표어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 전달에 주력
• 라디오 광고 : 청각적인 효과를 고려
• 텔레비전 광고 : 영상, 소리, 문자가 결합된 종합적 이미지 전달
- 14 이 광고는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을 쉽게 뺄 수 있다는 광고이므로 헬스 트레이너를 모델로 쓰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 17 이 광고에서는 일회용 쓰레기를 화면에 담고 있으며, 이와 대조가 될 만한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8강 설명문

핵심 다지기

p.050

- 1 (1) (○) (2) (×) 2 ③

성취도 확인 문제

p.051

- 1 [다] 2 ④ 3 ① 4 ③

- 1 [가]는 동요, [나]는 수필, [다]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 2 ④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글쓴이의 개인적인 느낌이다.
- 3 [다]는 설명문이다. ①은 논설문을 읽는 방법이다.
- 4 ③은 무궁화의 생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52~055

- 1 ③ 2 ③ 3 ⑤ 4 ① 5 ④ 6 ④ 7 ①, ③ 8 나는 그곳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지만, 꼭 가 보고 싶다. →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을 설명하는 글에 개인적인 느낌이나 소망을 적고 있어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9 ② 10 [나]-[가]-[라]-[다] 11 (1) 주제 정하기 (2) 정보 수집하기 (3) 개요 작성하기 (4) 글로 표현하기 (5) 고쳐쓰기 12 ⑤ 13 ② 14 ② 15 ②

- 1 이 글은 김치에 대한 설명문이다. ③은 주장하는 글이나 정서적인 글에 대한 설명이다.
- 2 무조건 정보의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정보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시간과 경비는 정보의 신뢰도와는 상관이 없다.
- 3 이 글의 주제는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이다. ⑤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4 김치의 발효 과정에는 해로운 미생물도 있고 유익한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것은 아니다.
- 5 ㉞은 문장 길이가 적절하며, 그대로 써도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다.
- 6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 독자가 알기 쉽게 풀이하여 쓴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7 문제에서 식물을 원료로 하는 옷감을 묻고 있다. 하지만 ②, ④, ⑤의 내용은 원료가 식물이 아니다.
- 8 설명문에는 개인적 느낌이나 감정을 적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적어야 한다.
- 9 ㉠의 앞뒤 문맥을 확인해 보면, 앞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 뒷부분에 이어지므로 역접의 접속어가 적당하며, ㉡에는 앞 내용에 덧붙여질 것을 표시하는 접속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접과 첨가의 접속어가 적당하다.
- 10 글 전체의 제재를 소개하는 [나] 글이 처음 부분에 해당하며, '청각 피드백'의 기능을 설명하는 문단이 [가]이다. [가]에 대한 구체적 부연 설명이 [라]이며, [다]는 그 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에 배열되는 것이 적당하다.
- 11 글의 주제를 정하는 것과 무슨 연을 만들지 결정하는 일이 시작이다.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고, 자료를 선정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고쳐쓰기를 진행한다.
- 12 설명문을 쓸 때는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비유나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 13 일반 새끼줄을 풀 때는 오른새끼로, 금줄은 특별히 왼쪽으로 비벼 끈 원새끼를 이용한다.
- 15 [마]에서 짚신과 나막신을 대조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①은 예시, ③은 정의, ④는 분류, ⑤는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9강 보고서

핵심 다지기

p.056

1 (1) (X) (2) (X) 2 ⑤

성취도 확인문제

p.057

1 ⑤ 2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기록한 보고서 3 ③ 4 ①

- 1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지만 자신의 의견임을 밝히고 견해를 포함해도 된다.
- 2 동물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한 후 쓴 보고서이다.

- 3 의사 선생님과 간단한 면담을 하고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보고서를 쓰면 좋다. 나머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이다.
- 4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말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58~061

1 ③ 2 우리는, 했다. 3 ③ 4 ① 5 ③ 6 ⑤ 7 (예시 답) 조선 시대 양반의 기와집 운조루를 탐구하다. 8 ④ 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③ 15 실험 결과 4-(2)의 결과를 보면 40회부터는 장력이 오히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반죽을 많이 칠수록 장력이 커진다는 결론은 잘못되었다.

- 1 이 글은 탐구 학습 여행을 다녀온 뒤 쓴 글이다. 인터넷으로 축제의 일정을 알아본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 2 탐구 학습 여행을 가서 남도의 다양한 음식과 맛을 소개하고, 색다른 축제를 소개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 3 여러 명의 공동 작업일 경우에는 역할을 분담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 4 남도 지역 전체의 지도는 이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는 자료이다.
- 5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거나, 가격,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 7 운조루의 이름,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참신한 제목이 적당하다.
- 8 조원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다른 내용을 조사하였다.
- 9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보고서이므로 학생들의 토의, 토론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 10 문자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호 표기는 한글 표기로만 한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2 보고서가 줄글 형태로 되어 있어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다. 도표나 그래프 형태로 정리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 13 실험 결과를 정리할 때는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 14 실험 결과 4-(2)의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이 올바르게 결론에 적용되지 못했다.



- 15 '반죽을 칠수록 수분이 줄어들지만, 40회 이상 치면 오히려 장력이 작아졌다. 따라서 적절한 수타 횟수가 면의 쫄깃함을 좌우한다.' 정도의 결론이 타당하다.

10강 수기 · 회고록

핵심 다지기

p.062

- 1 수기 2 (1) (X) (2) (X) 3 ③

성취도확인문제

p.063

- 1 ⑤ 2 ③ 3 ④ 4 환영회에서 부른 노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옥에 티나 다른 없었기 때문에

- 수기는 특정한 형식적 제약이 없는 매우 자유로운 글이다.
- 수기는 실제로 체험한 일을 솔직하게 쓸 때 깊은 감동을 준다.
- 노래를 못 부르는 결점을 서슴없이 밝힘으로써,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한 경험을 쓰고 있다.
- 3문단에서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제시된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64~067

- 1 미장애인 2 ⑤ 3 ③ 4 ⑤ 5 ③ 6 ④
7 ⑤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③
13 ④ 14 (예시 답) 하지만 지금의 고통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렴.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이 따를 거야.

- 일반 사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아이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다.
- 글쓴이는 딸의 장애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 딸의 특기를 살려 인생의 희망을 찾고자 노력한다.
- 불편한 장애가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세르파를 구한 일을 잠시 후회하다가 절박함을 느끼지만, 이내 희망을 찾고 강한 의지로 살아난다.
- 희망을 잃고 생명에 위태로움을 느끼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추락한 세르파를 구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할 것임을 글쓴이는 이미 알고 있으며,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산악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이 글은 일상의 경험을 담은 수기이다. ④의 내용은 설명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다.
- 그가 프리지어를 사는 이유는 아내가 프리지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의 주제는 '그'의 삶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깨달음으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 맹인 부부의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프리지어를 통해 감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 수기는 글쓴이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감하며 읽어야 한다.
- [라]에서 부상을 입은 경험을 통해 고통과 시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고통을 이겨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의 내용이면 적합하다.

11강 영역 종합 문제 (비문학)

p.068~074

- 1 ③ 2 금줄은 사람들이 함부로 3 ④ 4 ② 5 ④
6 ⑤ 7 ① 8 ② 9 우리는 ~ 했다. 10 ①
11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보면 12 ②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⑤ 18 ⑤
19 ① 20 ③ 21 ④ 22 ⑤ 23 ⑤ 24 ③
25 ① 26 ① 27 ② 28 책벌레, '책벌레'라는 단어를 통해 정호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1 오답풀이

- ①은 수기(수필), ②는 소설, ④는 보고서, ⑤는 공익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 설명문은 '처음-중간-끝'으로 나뉘며, 이 글에서는 [가] / [나], [다], [라], [마] / [바]로 나눌 수 있다.
- ①은 [마]에서, ②는 [나]에서, ③은 [라]에서, ⑤는 [다]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가]에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은 분석, ③은 분류, ④는 비교, 대조 ⑤는 과정의 방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 5 [라] 단락의 핵심 내용은 '짚신의 뜻과 사용 역사'가 적절하다.
- 6 ①은 [가]에서, ②는 [다]에서, ③은 [나]에서, ④는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7 이 글은 보고서이다. ①의 내용은 수기(수필) 등의 글을 쓸 때의 유의점에 해당한다.
- 8 사진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을 보다 현장감 있게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9 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소감은 마지막 문단에 드러나 있다.
- 10 수업은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교육 과정에 따라 구성한 교육 활동이다. 중요하거나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은 학생들의 관심과 무관하게 전개될 수 있다.
- 11 |보기|의 밑줄 친 담화 표지어는 '요약'의 기능을 한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업 내용을 요약하는 장면이 진행된다.
- 12 중요 내용이라도 수업 중에 모든 내용을 메모하기는 어렵다. 또 메모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수업 내용을 놓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13 동물의 뼈, 조개 껍데기, 식물의 잎맥이나 줄기는 모두 단단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 14 이 글은 수기(회고록)이다. ⑤는 설명문의 유용함에 대한 설명이다.
- 16 이 글의 주제는 결함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 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에서 '덧니'라는 결함을 '크게 웃는' 행위로 극복한 사례가 드러난다.
- 17 이 광고는 공익 광고이다. ⑤는 상업 광고의 목적에 해당한다.
- 18 [가]는 인쇄 광고이고, [나]는 텔레비전 광고이다. ⑤의 설명은 라디오 광고의 특징에 해당한다.
- 19 텔레비전 광고는 영상을 주요 표현 수단으로 사용한다.
- 20 광고는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부정적인 기능도 가진다. 그러므로 광고를 볼 때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 21 ④는 면담이 끝난 후에 해야 할 활동이다.
- 22 응답자가 답을 꺼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 24 면담 질문을 할 때 개인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다.
- 25 방송반 부원을 뽑는 면접을 볼 때는 방송반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면담이 필요하다.

- 26 [가]는 인물의 장점이나 특징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름과 관련지어 소개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는다.

12강 품사

핵심 다지기

p.076

- 1 • 불변어 : 바람, 공기, 마음, 책, 현 • 변화어 : 불다, 먹다, 아프다, 예쁘다
- 2 (1) 조사 (2) 부사 (3) 관형사 (4) 동사

성취도 확인 문제

p.077

- 1 ③ 2 ④ 3 조사 4 ① 5 (1) 매우, 아주, 몹시 (2) 새, 온

- 1 '관형사, 부사'는 수식언이다.
- 2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착하게, 길고, 춥다'는 형용사, '흐르다'는 동사이다.
- 3 관계언은 낱말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조사를 말한다.
- 4 ①은 '상자'를 수식하는 수관형사이다.
- 5 '매우, 아주, 몹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고, '새, 온'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78~081

- 1 ② 2 ④ 3 ③ 4 ④ 5 ① 6 ① 7 곱다, 씹씹하다, 친하다, 아름답다, 좋다 8 ⑤ 9 ②
- 10 ㉠ 11 ④ 12 ① 13 ⑤ 14 ① 15 ③
- 16 ④ 17 (1) 체언 : 학교, 셋, 제주도, 너희, 거기 (2) 용언 : 움직이다, 슬프다, 뛰다, 예쁘다 (3) 수식언 : 옛, 빨리, 쿵쿵 18 새 19 마시다 20 ① 21 ② 22 ⑤ 23 감탄사 24 ③ 25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 즉 단어의 역할이 명확해 지도록 도와주는 말이다. 26 • 명사 : ㉠, ㉣ • 대명사 : ㉡, ㉢ • 수사 : ㉡ • 관형사 : ㉡ • 조사 : ㉢, ㉤, ㉥, ㉦, ㉧ • 감탄사 : ㉠ • 동사 : ㉡, ㉢ 27 ③ 28 (1) 동사, 먹었다, 먹을 것이다, 먹는다 (2) 형용사, 용감하구나, 용감한걸, 용감하지



- 1 부사는 특별한 경우에 조사가 붙기도 하지만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 2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 3 '공부하는구나'의 기본형은 '공부하다'이다.
- 4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이다. ④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5 '높이 나'의 '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날다'가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 6 ①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7 '평화, 예수, 나이'는 명사, '기다리다, 자다, 보다'는 동사이다.
- 8 '예쁜, 아름답게'는 형용사, '맨드라미'는 명사, '-가'는 조사, '피었다.'는 동사이다.
- 9 ㉠은 '집'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10 ㉡은 동사의 활용 형태이지 조사가 아니다.
- 11 ④는 '가(명사)' + '아(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 12 '그, 한'은 관형사이다.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부사이다.
- 13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달리다'는 동사로, 현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런 말들이 붙을 수 없다.
- 14 ①의 '그'는 소년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의 '자네', ③의 '우리, 너', ④의 '이것, 저것', ⑤의 '나, 그녀'가 대명사이다.
- 15 ③은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 16 ④의 '하나'는 수사이고, ①의 '두'는 시간을 수식하는 수관형사이다.
- 17 **Plus α!**
 - 체언 :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명사, 대명사, 수사)
 - 용언 : 서술어의 역할(동사, 형용사)
 - 수식언 :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관형사, 부사)
- 18 [가]는 관형사나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문장에서 '새'는 '신발'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19 '마셨다'는 기본형이 '마시다'인 동사이다.
- 20 [다]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 21 조사는 기본적으로 활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활용을 한다. ③은 격조사, ⑤는 접속 조사이다.
- 22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⑤는 동사, 나머지는 형용사이다.
- 23 독립언에 대한 설명으로, 품사로는 감탄사를 의미한다.
- 24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관형사인 데 위 문장에서 관형사는 쓰이지 않았고, '성큼성큼'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25 '고양이', '쥐', '물었다.'로 이루어진 두 문장의 뜻은 전혀 다르다. 이 두 문장의 뜻이 다른 것은 '가'와 '를' 때문이다. 이렇게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를 조사라고 한다.
- 26 느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말은 감탄사, 대상을 대신 부르는 말은 대명사, 사물의 이름을 지칭하는 말을 명사라 한다. 또 체언 뒤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사, 활용하면서 주체를 서술하는 단어 중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가 된다.
- 27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용언의 특징에 해당한다.
- 28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용언이라 한다. 용언에는 대상의 동작이나 움직임을 서술하는 동사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가 있다. 또한 용언은 문장의 쓰임에 따라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변화어이다. 이처럼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13강 사동 · 피동 표현

핵심 다지기

p.082

1 이, 기 2 사동, 피동

성취도확인문제

p.083

1 ④ 2 어른이 아이를 속였다, 영희가 가방을 들었다 3 ④ 4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해 말하며 '입히다.'와 같은 사동 표현을 쓴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권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노래할 애들은 블라우스를 입게 하면 좋겠어."로 고치는 것이 좋다.



정답 및 해설

- 1 [가]는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사동 표현의 문장이다.
- 2 사동 표현은 어떤 행동을 시키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시키는 표현이다. 주동 표현은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표현이다.
- 3 [나]는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④는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다.

실력 다지기 문제

p.084~087

1 ⑤ 2 • 피동 표현 : 놓이다, 끊기다, 열렸다 • 피동 표현 요소 : -이-, -기-, -리- 3 [나] 4 피동 5 ④ 6 ③ 7 ③ 8 ① 9 사, 사, 피, 피, 피, 사 10 ② 11 ⑤ 12 • 틀린 부분 : 닫혀진 → 닫힌 • 이유 : ‘닫히다’라는 피동사에 ‘-어지다’를 덧붙여서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다. 13 ①, ⑤, ⑥ 14 ③ 15 [가] : 날리게 하다 → 날리는 [나] : 높혔다 → 높였다 [다] : 늘이기로 → 늘리기로 [라] : 열리게 하면 → 열리면 16 ③, ⑤, ⑥ 17 [가] : 불려지는 → 불리는 [나] : 덮혔어 → 덮였어 [다] : 쓰여집니다 → 쓰입니다 18 ⑤ 19 ⑤ 20 ① : ㉠, ② : ㉡, ③ : ㉢, ④ : ㉣ 21 딱지를 떼이지 말고 와요, 능동형, 피동형, 치여 22 ②

- 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게 되는 표현이다. ⑤는 주어가 직접 동작을 행하는 표현이므로 능동문이다.
- 2 피동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시켜 피동사로 만들어야 한다.
- 4 피동 표현은 주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다는 심리를 반영한다.
- 5 **Plus α!**
사동 · 피동 표현의 심리적 · 사회적 특성
 - 행위의 주체를 감추려 할 때
 -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 법조문, 경고문, 안내문, 연설문 등에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 7 ③의 ‘끓겨졌다’는 ‘끓-’+‘-기-’+‘-어지-’+‘-었-’+‘-다’의 결합 형태로 피동 접사 ‘-기-’와 ‘-어지다’가 동시에 쓰여 불필요한 이중 피동이 되었다.
- 8 ①은 피동 표현에 반영된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해당한다.

- 10 [가]는 내가 그에 대해서 고집이 세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나]는 ‘나’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를 주어로 하여 피동으로 표현함으로써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 11 ⑤는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어 기계를 작동하는 것을 ‘-시키다’라는 사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 13 ③은 피동, ⑧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쓰였다. 나머지는 기본형의 활용 형태이다.
- 14 ③은 물고기가 어부에게 낚임을 당하는 피동문이다.
- 15 [가]는 ‘날다’에 사동 접사가 붙은 사동 표현이므로 ‘-게 하다’를 또 붙이면 이중 사동이 된다. [나]는 ‘높다’에는 사동 접사로 ‘-이-’가 붙는다. [다]의 ‘늘리다’는 ‘길이를 길게 하다.’는 뜻이고, ‘늘리다’는 ‘양을 많게 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라]는 [가]와 같은 경우이다.
- 16 ③, ⑥은 접사에 의한 피동이고, ⑤는 ‘-어지다’가 붙은 피동이다.
- 17 [가]의 ‘불려지다’는 ‘불+리+어지다’의 형태로 이중 피동이다. [나]의 ‘덮혔어’는 ‘덮+히+었+어’의 형태인데, 이 때 쓰인 ‘-히-’는 ‘덮다’라는 서술어에 붙는 표준 접사가 아니다. ‘덮다’에는 ‘-이-’가 적당하다. [다]의 ‘쓰여집니다’는 ‘쓰+이+어지다’의 형태로 이중 피동이다. 따라서 ‘-어지다’를 생략한 서술어가 적당하다.
- 18 첫 번째 장면은 ‘발을 밟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두 번째 장면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일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19 ⑤는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눕게 하는 사동문이다.
- 20 ①은 ‘추운 날씨’가 되도록 만든 ‘겨울’이라는 주체를 나타내기 위한 사동 표현이며, ②는 뉴스의 객관적 느낌과 함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③은 날씨 판단의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④는 ‘우리나라’가 구름에 의해 동작을 당한다는 의미 강조를 위해 각각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 21 ‘딱지를 떼는’은 행동을 당하는 것이므로 피동 접사를 통해 피동사 ‘떼이다’로 써야 하며, 여고생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의미이므로 ‘치다’라는 능동사를 ‘치이다’는 피동사로 써야 하며, 여기에 다시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치-+-이-+-어-’, 즉 ‘치여’로 표현해야 한다.
- 22 [가]는 피동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으며, [나]는 주체가 직접 행동을 취하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14강 영역 종합 문제 (문법)

p.088~092

1 ② 2 ④ 3 ⑤ 4 ① 5 (1) 용언 : 시끄럽다, 자다, 희다, 예쁘다, 노래하다 (2) 체언 : 울릉도, 둘째, 사랑, 나 (3) 수식언 : 꽤, 첨병첨병, 온갖 6 ③ 7 ④ 8 ② 9 ③ 10 ① 11 (1) ㉠, (2) ㉡, (3) ㉢, (4) ㉣, (5) ㉤, (6) ㉦, (7) ㉧ 12 ⑤ 13 ④ 14 문장에서 사용된 조사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15 ② 16 (1) 형태가 변하는 단어 : 푸르다, 춥다, 입다, 크다, 뜨겁다, 먹다, 추다, 자다, -이다 (2)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 : 사과, 너, 할머니, 다섯, 우리, 장난감 (3)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의 개수 : 3개 17 ④ 18 ② 19 •○ : 애벌레, 꼭대기, 오르려고, 기, 쓰고, 있었다. •X : 는, 예, 를 20 ① 21 ③ 22 ⑤ 23 ① 24 [가]는 포수 열 명이 힘을 합쳐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와 열 명이 각각 사슴을 한 마리씩 잡았다는 의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나]는 전자의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25 ④ 26 ② 27 ⑤ 28 손녀, 할머니, 손녀, 할머니, 손녀, 할머니, 남에게 시키는 행위 29 ① 30 [가] : 흠스에 의해 사건의 비밀이 모두 풀렸다. [나] : 하늘이에게 희철이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 : 선생님이 자리를 바꾸었다. [라] :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 31 ② 32 ⑤ 33 ④ 34 •사동 표현 : 벗기다, 울리다, 씻기다, 지우다, 신기다 •사동 표현을 만드는 요소 : -기-, -리-, -기-, -우-, -기-

- 1 수식언은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므로 없어도 문장은 성립한다.
- 2 ④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3 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4 ①은 조사가 아니고 용언의 활용형이다.
- 5 용언은 동사, 형용사이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이며, 수식언은 관형사와 부사이다.
- 6 ③은 명사이고, 나머지는 감탄사이다.
- 7 위 글은 관형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④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가 있다. '활짝, 매우, 높이, 참, 몰래'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8 ②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인데, 수를 나타내므로 '수관형사'라고 한다.
- 9 '아무런'은 '관심'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10 ①의 '그'는 대명사가 아니고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②는 '나', ③은 '너희', ④는 '우리', ⑤는 '그', '우리'가 대명사이다.
- 11 (1) 감탄사, (2) 동사, (3) 수사, (4) 조사, (5) 부사, (6) 명사, (7) 형용사
- 12 괄호에는 '빠르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어느'는 관형사이다.
- 13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의 품사는 부사이다. ④는 형용사의 특성에 해당한다.
- 14 조사는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조사의 쓰임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15 ① 책상, ③ 집, ④ 희망, ⑤ 곳, 꿈
- 16 (1)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한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도 활용을 한다.
(2)는 체언에 대한 설명이다.
(3)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부사이다. 부사는 '그리고, 엄청, 딱'이다.
- 17 ④는 동사이고, 나머지는 형용사이다.
- 18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뛰다'는 동사로, 현재형 어미 '-는-',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이 자유롭게 붙을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런 말들이 붙을 수 없다.
- 19 체언 뒤에 결합해서 쓰이는 조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 20 밑줄 친 단어는 조사이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활용을 한다.
- 21 '여보'는 부르는 말로 감탄사, '숙제', '철수'는 대상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 '이제', '다'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 '하네요.'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 22 사동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는 피동 표현이다.
- 23 동일한 형태의 접사가 사용되더라도 서술어의 목적어가 있거나 문맥상 '시킴'의 의미가 드러나면 사동, 목적어가 없고 동작의 당함을 나타내면 피동이다. ①은 사동이다.
- 25 ④의 '만지다.'는 접사에 의한 피동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지다.'의 피동형은 '만지어지다.'이다.



정답 및 해설

- 27 이 광고에서 당신의 품위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 살면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다.
- 28 사동 표현은 스스로 하는 행위보다 시키는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 29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느낌을 준다. 만일의 경우 예상이 어긋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나타난 표현이다.
- 30 피동문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함을 나타낸다.
- 3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당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접사를 활용하거나, '-어지다', '-게 되다'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 32 피동과 사동 표현은 화자의 관점은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33 접사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때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접사 사동은 직접, 간접의 행위로 모두 해석될 수 있으며, 통사적 사동은 간접의 행위로만 해석된다.
- 34 사동을 만들 수 있는 접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이다.

15강 실전 평가 1회

p.094~099

- 1 ② 2 ④ 3 ③ 4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텃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5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서럽고 막막했던 기억이 쓸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6 ③ 7 [마] 8 ⑤ 9 불길하다, 울적하다, 고독하다, 걱정스럽다 등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③ 20 ⑤ 21 ③ 22 ㉠ 조사 ㉡ 관계언 23 ⑤ 24 ③ 25 3개 26 대명사, ① 둘째 아들, ② 부잣집 문 앞, ③ 도깨비, ④ 도깨비의 손 27 ④ 28 요즈음 환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 모두가 스스로 이 환경 속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29 ⑤ 30 ②

- 1 의성어나 의태어는 찾아볼 수 없다.
- 2 [가]에는 시각적인 심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① · ⑤ 공감각적 심상, ② 촉각적 심상, ③ 후각적 심상

- 4 화자의 이상향 '강변'의 모습을 대구법(~에는)을 사용하여 드러냈다.
- 6 시어와 노랫말은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7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8 바람의 탓으로 간판이 떨어진 것이다.
- 9 수남이는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 웬지 모를 불안감과 울적함, 고독을 느끼고 있다.
- 10 [라]에는 수남이와 신사의 갈등이, [보기]에서는 '나'와 '아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11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설득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 12 수남이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13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빨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하였다.
- 14 면담 중에 자료는 모을 수 있는 한 많이 모으는 것이 좋다.
- 15 ⑤는 면담하기의 단점에 해당된다.
- 16 ⑤는 면담이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
- 17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옳다.
- 18 소개를 할 때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
- 19 **Plus α!**
보조 자료 활용하기
• 듣는이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보조 자료를 활용
• 소개할 물건, 소개하는 대상을 그린 그림이나 사진 제시
• 대상과 관련된 동영상 제시
- 20 천사 같은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개 없는 천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 21 ③ '날아가다'는 동사, 나머지는 형용사에 해당된다.
- 22 조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23 ⑤의 단어들은 동사이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 24 수사와 관형사의 구별 :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으면 수사, 뒤에 조사가 오지 못하면 관형사이다.



- 25 체언과 결합한 ‘(대나무)는, (살)을, (바람)을’ 이 조사이다. ‘에는’은 ‘에다’라는 동사가 활용된 것이다.
- 26 ‘자네’, ‘나’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 ‘여기’는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는 대명사이다.
- 28 ‘급증되고’-‘급증하고’, ‘생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로 바꾸는 것이 옳다.
- 29 ‘쓰여진다.’는 ‘쓰이어진다.’의 준말로,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중복된 말이다. ‘쓰인다.’가 옳은 표현이다.
- 30 ②는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16강 실전 평가 ②회

p.100~105

- 1 ③ 2 ④ 3 호수 4 ④ 5 ⑤ 6 ② 7 ③
- 8 노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9 간결하고 함축적인 느낌을 통해 여백과 압축의미를 나타낸다. 10 ①
-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③ 16 ①
- 17 ㉠ 설득, ㉡ 상품 광고, ㉢ 공익 광고 18 ②
- 19 ⑤ 20 ⑤ 21 ② 22 ② 23 ⑤ 24 ④
- 25 ② 26 ② 27 ② 28 (1) 이번 문제는 끝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2) 이 책을 구입하시면 저희 회사가 직접 교육하여 드립니다. 29 ① 30 ④
- 1 [가], [나]와 |보기|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① 공감각적 심상, ② 미각적 심상, ④ 촉각적 심상, ⑤ 후각적 심상
- 2 ‘눈 감을 밖에’는 그리움이 너무 커서 버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3 얼굴의 크기를 ‘손바닥 둘’로, 그리움의 크기를 ‘호수’로 빗대고 있다.
- 4 대체로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 5 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해소 과정, 인물의 말과 행동 등에 유의해서 읽어야 한다.
- 6 텔과 게슬러 사이의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7 절제된 묘사, 짙은 대화, 담백한 문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인 느낌을 준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 8 노인의 삶은 자연을 닮은 삶이며,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이다.
- 9 시간과 장소, 서술적 조사 ‘-이다’의 생략을 통해 여백과 압축의미를 보여 준다.
- 10 ①은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 진다는 의미이다.
- 11 ⑤는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12 [나] 단락에서 정보 수집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일정을 확인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 13 ③은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다.
- 15 축제 일정 중에 전문가들의 음식 만들기 경연 행사가 있었지만 참석했다는 내용은 없다.
- 16 ①의 예는 각운을 사용하여 제품명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언어의 규범을 파괴한 것은 아니다.
- 17 광고의 목적은 설득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광고’란 ‘설득력이 높은 광고’라고 할 수 있다.
- 18 라디오는 청각적 요소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 19 광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 위주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가진다.
- 20 [A]는 이성적 광고, [B]는 감성적 광고이다. 감성적 광고와 이성적 광고가 조화를 이루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 21 허위나 과장 광고는 옳바르지 않다.
- 22 동생/과/나/는/거의/동시/에/소리/를/지르고/말았다.
- 24 ‘컴퓨터, 공원, 일찍, 꽃’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불변어)이고, ‘뜨겁다, 맑다, 느리다’는 형태가 변하는(가변어)이다.
- 25 |보기|에서 ‘너무, 광광’은 부사이다.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어라고 한다.
- 26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된다.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용언에 속한다.
- 27 다른 사람에게 내 신발을 신기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을 써야 한다.
- 29 ② ‘잡혔다’-‘잡았다’, ③ ‘안졌다’-‘안았다’, ④ ‘읽혔다’-‘읽었다’, ⑤ ‘풀렸다’-‘풀었다’
- 30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①~③처럼 주동 표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붙여 만들거나, ⑤처럼 주동 표현에 ‘-게 하다’를 붙여서 만든다.



17강 실전 평가 ③회

p.106~111

1④ 2③ 3 입신양명(立身揚名) 4 길동은 적서를 차별하는 당시의 사회 제도 때문에 호부호형(呼父呼兄)하지 못하고,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없어 갈등하고 있다. 5① 6② 7 [가] ㉠, ㉡, ㉢ [나] ㉣, ㉤ 8③ 9② 10④ 11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지고 현대에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12③ 13② 14 [마] :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나눔의 말, 부축의 말 [바] : 희망의 말 15⑤ 16③ 17⑤ 18① 19④ 20 눈물, 것, 웃음 21③ 22④ 23 관형사,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부사, 동사 24③ 25④ 26 열렸다 27 당분간 이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28 (1) 주동, 사동 (2) 책임 29 '믿겨지지' → '믿기지', '걸려져' → '걸려' 30 열려 있는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뽀뽀 들어온다.

- 1 고전 소설에는 일반적으로 한 계층을 대표하고(전형적),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평면적) 인물이 등장한다.
- 2 [가]에서 쓸쓸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 4 길동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서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 5 무관보다 문관이 우대받던 유교 중심의 사회였다.
- 6 ② 방문하고 싶은 구체적인 장소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적당히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 7 [가] : ㉠ '재복'이라는 이름의 유래, ㉡ '학다리' 별명, ㉢ 병원 입원 일화
[나] : ㉣ '날개 없는 천사', ㉤ 갈 곳 없는 아이를 보살피 준 일화
- 8 듣는이가 모르는 내용을 전달하므로 사실 위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느낌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 9 글을 쓴 후에는 글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며 반드시 고쳐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
- 10 짚신과 똑같이 생겼으나 그 재료가 마(麻)인 신발을 '미투리'라고 한다.
- 11 [나]는 금줄의 뜻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므로, 남아선호 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12 글이 완성될 때까지 몇 번이고 수정하여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 13 '괜찮아'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병렬적으로 나열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14 글쓴이는 '괜찮아'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마]와 [바]에서 표현하고 있다.
- 15 수기는 글쓴이의 경험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쓴 글이므로 다양한 간접 체험을 통해 삶의 성찰,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16 이 글은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수기이다.
- 17 [보기]의 단어들은 명사이므로 체언에 속하는 것들이다. 체언은 활용을 하지 않고 동사와 형용사(용언)가 활용을 한다.
- 18 앞에 오는 체언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격조사'라 하고, 앞에 오는 체언에 어떤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을 '보조사'라 한다.
- 19 활용을 하는 것은 서술격 조사 '-이다', '동사', '형용사'이다.
- 20 [보기]는 체언의 특징으로, 문장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찾아본다.
- 21 ③은 명사로만 묶여 있다.
- 22 [보기]는 용언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④는 체언의 기능이다.
- 23 '새'는 명사인 교과서를 꾸며주는 관형사이고, '꼭'은 동사인 '든다'를 꾸며주는 부사이다. '마음'은 명사이고, '가', '에'는 조사이다.
- 24 ①, ②, ④, ⑤는 부사이고, ③은 감탄사이다.
- 25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을 보통 명사라고 하고,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고유 명사라고 한다.
- 27 능동문이란 능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뜻한다.
- 28 주동(主動) : 주인 주, 움직이다 동 → 주체가 움직이는 것
사동(使童) : 시키다 사, 움직이다 동 → 움직이도록 시키는 것
- 29 '믿기다', '걸리다'와 같이 '믿다', '걸다'에 '-기-'와 '-리-'가 붙어서 생긴 피동 표현에 다시 '-어지다'를 붙여 '믿겨지지', '걸려져'와 같은 이중 피동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믿겨지지', '걸려져'는 각각 '믿기지', '걸려'로 바로 잡아야 한다.
- 30 '열려져 있는 창문'은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한 것이다. '열려'는 이미 피동 표현인데 그것을 반복하여 이중 피동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